



송석범, 행감장서 음주추태 '물의'

<대전 동구의회>

무단 이석·음주후 밤 늦게 등원 비난 가중

대전 동구의회 송석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감장에서 음주추태를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음주추태 이후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는 하지않고 변명으로 일관, 동료 의원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복수의 동구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일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저녁 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오후 5시경 본회의장을 떠나 저녁시간이 지난 후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료의원이 송 의원에 대해 연락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속히 등원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밤 10시경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것. 문제는 송 의원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송 의원은 발언권을 얻자 "의원 들끼리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과 무슨 소통을 하느냐"고 수차례 언성을 높이는 등 추태를 부려 결국 감사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당초 밤 12시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가 도중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끝나게 됐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송 의원이 이날 무단 이석하면서 음주 후 밤늦게 등원했다는 점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던 동료의원들과 동구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송 의원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고 본회의장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다.

대전 동구의회는 사실 이날 특별한 날이었다.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일

하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가양2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뤄졌던 날로 구의회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이목이 집중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동구의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송 의원의 음주추태로 빛을 바랬다.

이후 동구의회는 송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음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송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3일 송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송구스럽다"는 말로 이 사태를 넘어가려고 해 더욱 빈축을 샀다.

1년의 구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하는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송 의원의 불행사나운 음주추태는 올해로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시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42·가오동) 씨는 "1년동안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잘 집행됐고 잘 쓰여졌는지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원이 음주추태를 벌인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며 "동구는 특히 다른 구에 비해 재정이 어렵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누구보다 동구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무단 이석하고, 음주까지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 의원에 대해 "그날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난 줄 알고 친구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을 마시게 됐다"고 말해 의사일정도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 비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송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음주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서산 음암면 도당리 인근도로 '흙투성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공사현장 감독부실

환경오염 심각... 인근주민·차량운전자들 불편 호소

서산시 우회도로인 음암면 부장리에서 성연면 일남리 구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암면 도당리 인근 도로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마을 주민들과 이동하는 차량운전자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륜시설이 없는 곳을 흙을 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수차례 공사관계자와 전화를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관할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지금, 1개월이 넘도록 도로가 오염된채 방치하고 있어, 출퇴근에 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고 세차를 하루에 한번을 해야할 정도로"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 현장관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세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지만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서산시 성연면 일남리에서 음암면 부장리 구간 총연장 7.65km에 폭20m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공사비 790억 보상을 포함해 총 1040억을 투입, 지난 2007년 2월에 착공해 오는 12월31일 까지 완공을 목표로 낙찰 받은 N

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다.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서해대교 대체도로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당진시, 통행금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연륙교 건설 필요



충남도계 및 당진평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위회)가 지난 7일 서해대교 전면통행금지로 지역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해대교 우회도로인 연륙교 건설을 서둘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일 서해대교가 주탑 케이블 절단으로 통행이 전면 금지

된 이후 첫 주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서평택 IC에서 국도 38호선을 이용해 아산만과 삼교천을 거쳐 20km 정도를 우회해서 다시 송악IC로 진입해야 하는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우 5일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1만 6000대로 평소 토요일(5만 5000대) 대비 70%이상 감소한 반면 우회도로인

38·39호선은 교통량이 8만 4000대로 평소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하루 교통체증으로 인한 유발비용만 수십억의 손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제로 인한 피해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소 주말마다 정체를 빚던 경부 고속도로 오산IC~북천안 IC 29km 구간과 천안C~천안분기점 6km 구간은 차량속도가 20km 이하로 더욱 떨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당진시는 이러한 유사상황에 대비해 ▲안전적인 육상물류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우회도로망 확보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서해안 고속도로의 물류분산, 재난상황 시 물류안보 분담의 효과가 있는 연륙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교통량 및 도로건설 타당성 조

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우 연륙교는 일 평균 3만 4800대의 차량이 이용하며(항만 차량비율 78%) 경제성검토 결과도 1.09로 나오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연륙교 건설사업의 예타 대상사업이 12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연륙교는 유사시 우회도로 활용의 최적의 대체수단이며 항만경쟁력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륙교는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에서 당진항 내항 서부두 3.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교통수요 예측결과 2036년 기준 일평균 1만 1000대의 대형화물차량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30년 53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제62회 백제문화제 내년 9월 24~10월 2일 확정

백제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내·외인들의 많은 관심이 백제유적지구에 집중되는 가운데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충남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백제! 세계를 품다(가칭)'를 주제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12월 8일 부여군 규암면 소재 추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36차 이사회에서 제62회 백제문화제 기본구상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61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제62회 백제문화제는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62회 백제문화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역사문화축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역사문화예술 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속성 계승 ▲백제문화의 창조성, 진취성 ▲개방성 등 백제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본 컨셉으로 삼아 신규 프로그램 개발, 경제성 확보, 주민참여 제고,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다중언어 서비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행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백제 교류국 및 백제권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 권역 백제문화제 관련 프로그램', '찾아가는 백제문화제', '백제 음식

개발' 등을 시제로 제시했다.

기존 제례 및 테마 프로그램 등 우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역사문화예술 콘텐츠 연구 개발을 하여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관련 교수 및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등을 통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백제문화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나

내포=이지용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리얼미터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 결과>

안희정 지사 '상승' · 이춘희 시장 '하락'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관용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9%로 10월 대비 0.2%p 상승했고, 안희정 지사는 65.3%로 0.8%p 상승해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10월과 동일한 62.8%의 긍정평가가 3위를 유지했다.

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39.2%), 윤장현 광주시장(43.0%), 유정복 인천시장(44.3%)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월 대비 순위가 급등했는데,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

가 10월 대비 8.8%p 오른 54.2%로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올랐고, 남경필 지사는 5.0%p 오른 55.1%로 12위에서 8위로 4계단 상승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3.1%p 오른 55.3%로 9위에서 7위로 2계단 올라섰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하락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대비 4.1%p 내린 46.6%로 10위에서 13위로 3계단 내려앉았고, 이춘희 세종시장 또한 2.4%p 내린 50.3%로 8위에서 11위로 3계단 하락했다.

시도지사 중 차기 대선주자를 살펴보면, 전체 2위에 오른 안희정 충남지사(65.3%)가 대선주자시도

지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5.1%의 긍정평가로 전체 8위에 오른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체 13위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46.6%)이 3위, 전체 17위 홍준표 경남지사(39.2%)가 마지막 4위로 조사됐다.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10월 대비 각각 5.0%p, 1.2%p, 0.8%p 상승한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4.1%p 하락했다.

이번 11월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53.3%를 기록해 10월(52.5%) 대비 0.8%p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0.2%로 10월(31.0%)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방식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two-month 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에 따라 1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5%이다. 김정환기자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 “4·13 총선 출마 공식 선언”

8일 도청서 기자회견 “홍성·내포·예산 부흥시킬 것”



양희권(58·새누리)페리카나 회장이 내년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8일 양 회장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대 총선(예산·홍성 선거구)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구태정치 심판과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회장은 “옛 부흥의 중심지인 예산 홍성을 다시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 거듭 부활시킬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세비를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비교조차 되지 않던 서산, 태안, 당진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는 사이 우리 홍성, 예산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며 “이제는 구태한 정치를 과감히 청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 뿐”이라며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기업인 출신, 합리적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이명수 의원, 지역발전·SOC 구축위한 4800여억 국비 확보

201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등·아산시와 충남도 공무원들, 아산시민 성원으로 이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이 충청남도 아산시, 그리고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 및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 소위원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2016년도 아산 발전을 위한 국비 총 4,800여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비롯 국도 및 하천정비, 전국체전 준비예산 등 총 4,8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내년 전국체전준비를 위

한 예산확보에 주력했고,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예산 마련을 위해서도 부처 관계자 및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며 성공적 전국체전과 함께 지역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복기왕시장을 비롯 아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더욱

더 아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 확보는 무엇보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아산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16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민생정치를 통해 아산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리정주기자

이해찬 의원, 세종시에 지역자활센터 신규 유치

세종시 남부권 지역에 신규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된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기존에 조치원 지역에 세종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주로 세종시의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나 신도시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도시 거주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다.

이에 따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남부지역에 자활센터의 신규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세종시 남부권 자활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16년 세종을 비롯한 전국 5곳(세종, 서초, 구레, 의성, 철원)에 자활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세종시 남부권 자활센터 유치가 확정되어 우선 내년에 1억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됨으로써 세종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의원은 “우리 지역 저소

득층 시민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수준을 높여 줄 지역자활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민들의 가정경제의 안정화와 행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환기자



계룡사랑포럼, 이인제 국회의원 초청강연 가져

“통일은 경제다”라는 주제로 강연... 시민170여명 참석



계룡사랑포럼(회장 유병호)은 지난 3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계룡시 대강당에서 지역구 이인제 국회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초청 “통일은 경제다”라는 주제로 시민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간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시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함으

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 한다 취지로 실시되었는데, 눈보라 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럼 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인제 의원은 강연을 통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투자비용이며 그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5위

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전문가들은 자신보다 훨씬 낙관적이라며 “세계적 투자는 행 끝드만 약 2009년 9월 보고서(Global Economics Paper)에서 한국이 통일 후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강대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며 “가난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다 보면 3만 달러(현재 기준)의 소득이 1만 5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통일 경제학에서 두 지역의 소득이 높은 지역의 소득은 빠른 속도로 더 증가하고, 낮은 지역 소득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며 “통일은 통일 후 10년이 지나고 서독 주민 소득의 92%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계룡=주선용기자

박수현 의원, 기자들 뽑은 ‘백봉신사상’ 2년 연속 수상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수상의 쾌거 이뤄... 수상한 평의원 중 유일함 초선



박수현(사진)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되어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7회 백봉신사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룩했다. 수상한 평의원 중 유일한 초선이다.

2015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박수현 의원 외에도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

승민 의원, 조해진 의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안철수 의원, 우윤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백봉신사상’은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의화)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독립운동가이자 공복 후 국회부의장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매년 국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 250명을 설문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의 쾌거를 이룩했다. 수상한 평의원 중 유일한 초선이다.

2015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박수현 의원 외에도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

승민 의원, 조해진 의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안철수 의원, 우윤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정되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7일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으로 2013년 이어 2015년 수상자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 국회의원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주동담)가 언론사대표 등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법률안 발의현황과 국회 본회의 출석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등을 심사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 - 1437호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 공고

1. 자연녹지지역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9일

대전광역시

가. 권 명

- (1) 덕평(수동골)지구 지구단위계획(안) / 유성구 덕평동 176-62번지 일원
- (2) 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안) / 대덕구 상서동 348-2번지 일원

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공개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 계획생략
마. 입안사유
-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교통환경 및 경관개선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바.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 계획생략
※ 문의전화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042-270-6242)



순수의 나라 라오스 '따뜻한 한국의 情' 나누다

충남도자원봉사센터, 현지 학생들에 대한민국의 이미지 재고·현지주민들과 어울리며 민간외교 역할 '톡톡'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지순관)를 통해 '지구촌 행복공동체 만들기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라오스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을 나누고 돌아왔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11일 도청 별관에서 도내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실적 우수 자원봉사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라오스 해외봉사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지난달 24일 라오스로 남아갔다.

해외봉사단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의 메콩강변에 위치한 하칸사 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와 함께 열악한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봉사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봉사활동 기간동안 교육봉사와 직업봉사로 나누어 교육봉사는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한국동요, 손씻기와 칫솔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직업봉사는 수도공사와 화장실 공사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라오스 현지 실정을 고려해 충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최우선적으로 현지 NGO단체인 라오프랜드(대표 박민수)와 협력해 미리 관공을 개폐해 놓아 관공에서 물탱크를 연결하는 배관공사로 수도시설을 만들어 주었다.

화장실공사는 10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2칸뿐이어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2칸을 증축하는 공사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벽돌을 쌓고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5일동안 34~35도를 오르내리는 땀뻘에서 봉사단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마무리해 다소나마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계획에 화장실 증축이 1칸이었으나 학교측의 요구로 작업량이 늘어나 점심시간을 아끼기 위해 봉사현장에서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작업했으며, 현지주민들도 봉사단의 노고를 알고 함께 참여해 공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운동장 또한 관리가 안 돼 운동 풀밭으로 학생들이 뛰어놀기에 불편해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봉사단원들이 심시일만으로 대형 트럭 15대 분량의 모래를 구입해 운동장에 깔아 주었다.

또한, 이·미용 장비와 즉석 인화장비를 가져가 학생들의 이미용봉사는 물론 학생들의 표정을 활영해 즉석에서 인화한 사진을 전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봉사단과 학생들이 함께 학교 담장에 수성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고 손도장을 찍으며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지막날에는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해간 학용품과 서산동문초등학교에서 후원한 의류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한국의 정을 나누었다.

라오스 해외봉사단 김진홍 단장은 "라오스는 충남도에서 올해를 시작으로 해외봉사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앞으로 쪽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해외봉사로서는 짧은 기간이라 아쉬운 점이 많으나 더 발전하는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봉사활동을 마칠 것이다"고 말했다.

라오스 하칸사 초등학교 쏘폰 교장은 "화장실 우물 운동장 학용품 벽화 등 한국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우물이 말라 큰 불편을 겪었는데 우물을 파주어 아이들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2016년에도 다시한번 방문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간동안 봉사단의 모든 안전을 위해 노력해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라오스 현지에서의 라오프랜드 박민수 대표와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로 인구는 약 680만명이며,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1974년 대한민국과 수교하였으나 1975년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단교하다가 1995년 10월 25일에 재수교하였다.

라오스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로 수도는 비엔티엔이다. 다른 큰 도시로는 루앙프라방, 사완나켓, 참빠삭 등이 있다. 공용어는 라오어이다.

라오스 주민의 대부분은 라오족이며 이외 48개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승 불교가 라오스 문화의 핵심이다. 라오스 국민의 67%가 소승 불교를 믿으며, 각 마을마다 사찰이 있으며 사찰은 종교행사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육도 담당한다.

공주=정성범 기자



충남, 라오스 해외 봉사활동 '성료'

충청남도 해외봉사단이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5일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했다.

'지구촌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모토로 지난달 24일 현지에서 파견된 24명의 자원봉사단은 비엔티엔의 하칸사 마을에서 초등학교 시설보강과 우물설치, 이·미용 봉사 및 가족 사진 촬영, 벽화그리기, 색종이 접기 및 보건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현지의 학생, 주민과 함께 전개했으며, 재능과 노력 봉사활동 이외에도 출국전에 미리 자체 바자회 등을 통해 학용품과 의류 등의 위문품을 마련, 하칸사 초등학교와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해외 봉사단은 현지에서 5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화장실 신

축 1동 20평 ▶배수로 정비 30m ▶관정개발 및 우물 설치 1개소 ▶벽화 1개소 80㎡ ▶페인트페인팅 3회 87평 ▶색종이접기 및 보건교육 4회 87명 ▶이미용 봉사 2회 87명 ▶가족사진 촬영 87명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의류 500점과 학용품 150여트를 위문품으로 지원했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지순관 센터장은 "올해 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2회에 걸쳐 연인원 61명의 전문 봉사자를 개도국인 라오스에 파견, 나눔과 배려의 충남인 기상을 지구촌에 전파했다"며, "참가단원을 공개 모집 및 투명한 절차로 선정, 도내 우수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동 정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설철호 대전시 교육감= 9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9일 오전 10시 15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대전시교육청 성년식' 참석, 이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

대전시교육청 성년식



한현택 동구청장= 9일 오전 10시 도동동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전시교육청 성년식 참석.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 회의



박용강 동구청장= 9일 오후 6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 회의' 참석.

우리노인대학 작품발표회



장종태 서구청장= 9일 오후 1시 10분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제22기 우리노인대학 작품발표회' 참석.

매점운영 수익금 기탁식



헤태정 유성구청장= 9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제6회 국화전시회 매점운영 수익금 기탁식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9일 오후 2시 대전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상생발전 가속화

市, 회덕IC 건설·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등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대전시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전시에서 건의한 회덕IC건설 등 도로사업 2건이 모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통량조사 및 사업비 산출 등을 거쳐 경제성분석(B/C)을 실시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시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추진을 하게 된다. 시는 회덕IC가 건설되면 영남권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 도로를 이용해 세종시로의 최단거리 접근이 가능하고,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은 대전시 서남부권과 논산시간통행량 증가에 대처하고 광역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라고 밝혔다. 본 도로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대전시에서는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와 함께 권선택시장임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노력해 온 결과, 이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회덕IC건설과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회덕IC건설과 서대전IC~두계3가 구간 도로확장사업이 모두 개통되면 통행량 분산과 거리단축으로 광역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광역교통망의 효율성도 강화되어 대전시와 인근도시 간에 상생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노인일자리 35개 사업 1894명 창출

유성구, 구청장 공약목표 94.7% 달성으로 순항중

2018년까지 2000개의 노인일자리 마련이라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의 공약이 2015년 94.7%의 이행율을 보이며 순항중이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수행기관별로 4회에 걸쳐 실시한 '201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회'를 8일 유성구노인복지관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종합하면 올해 35개 사업 1894명의 노인일자리가 마련됐으며, 이는 2018년까지 2000개 창출 공약의 94.7%가 이

행된 것이다. 올해 추진한 사업유형은 운전수노노케어를 비롯해 참가제조사업, 행복유성지킴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됐다. 특히, 운전수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 관내 200여 곳의 경로당과 지역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대전역~와동IC 광역BRT 건설현장 점검

권 시장, 잔여구간 조기완료 등 시민불편 없도록 당부



대전시 권선택 시장은 8일 오후 2시 대전~세종 광역BRT 건설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권시장은 관계자들로부터 대전역 동광장에서 BRT 도로건설, 환승센터 및 차고지 조성 추진현황, 완공 후 차량 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대전역~와동IC까지 대전

시 건설구간과 와동IC~세종시(KDI)까지의 행복도시건설청 건설 구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잔여구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한남5가에서 오정시장5가까지 하수박스 보강을 위하여 일시정지된 사업을 설계 변경 등을 마치고 곧 사업을 재개하여 2016년 2월경까지 완료하고, 시험운행 기간을 거쳐 2016년 7월경 BRT버스가 운행되면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됨으로서 동구, 대덕구 등 원도심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역~와동IC 광역BRT 사업은 대전역에서 와동IC까지 11.5km를 국·시비 729억 원 들여 대전시에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영호 기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승합차량 전달식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3억 7천여만원 상당의 사랑의열매 승합차량 전달식을 8일 오전 10시 대전국립중앙과학관 내 주차장(유성구 구성동 32-2)에서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 차량은 그랜드스타렉스 15대로 대전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웃사랑에 동참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중구, 정비사업시 '온라인 소통의방' 개설 필수조건

이해당사자 상호간 불신 제거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정비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인 입주예정자 및 시공사, 조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정비사업시행인가 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인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착공신고서 접수 시 개설여부를 확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공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운영하고 공사 추진현황 및 법률정보 사전제공, 질문·답변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상호간 불신을 제거해 신뢰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북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조합)가 적극적인 운영의지를 보이고 있어 착공시점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농협, 저소득층 지원 양곡 8천kg 기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8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서부농협(조합장 임현성)으로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양곡 8천kg(시가 1천5백여만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았다. 서부농협은 지난해에도 양곡 8천kg을 지원한 등 매년 연말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대전시노인복지관 후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조성현)는 8일 오후 2시 대전시노인복지관(관장 유한봉)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는 이로써 올해 2월과 9월에 이어 3번째로 대전시노인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성현 지사장은 "일시적인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으로 사회적 효행운동에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원금은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써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주택금융홍보대사이기도 한 유한봉 관장은 "노후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금은 어르신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병배 기자

국제적 수준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유성구-유니세프 한국국위원회 업무협약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적 아동 지원 기구인 유니세프와 손잡는다. 구는 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유성구가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노력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시행에 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지원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협력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유성구 주관 유니세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민선 6기 아이 낳아 키우려는 도시를 공약으로 공보육



시스템의 강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역점 추진해왔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존중함은 물론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서천군 내년 정부예산 2039억원 확보

지역 국회의원·중앙부처·출향인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 통해 지난해 대비 12억원 증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내년도 국가시행사업 1644억원, 지방시행사업 395억원 등 총 2039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초 대학 캠퍼스 유치, SOC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해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2039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충남 중소기업인

김장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회·단체장들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등 지역 공공기관장 14명은 9일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대전충남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협의회(이하 유관기관협의회)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한국경영학회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등 14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연말 대행사'와 연계해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홍보와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참여 기관·단체들이 모은 성금으로 김장 김치 1000kg을 담가 응원종합사회복지관, 대한민국의자녀회 충남복지관, 효광원, 대전구세군 혜생원, 후생학원, 섬나의 집 등 6개 복지시설 기관에 전달한다.

유관기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충남중기청 이인섭 청장은 "전통시장 연말 대행사는 전통시장만의 테마와 특색이 있는 차별화된 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유관기관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병배기자

노사정 함께 행복한 겨울나기봉사

KT CS대표 유태열과 대전지방공용노동청(청장 김영국), KT CS 노동조합(위원장 정문식)이 8일 오후 3시 노사정 연합으로 '행복한 겨울나기' 노사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30여명의 노사정 연합 봉사단은 연탄 7800장, 난방유 60드럼(1만 2000L)을 대동사회복지관(대전시 동구)에 기부하고, 복지관 결연가정에 연탄 6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와 더불어 KT CS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노사정 연합봉사활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활동은 '연탄배달', '무로급식', '김장김치 전달' 등으로 총 4400만원 상당의 겨울나기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 후원할 예정이다.

유태열 KT CS 대표이사는 "노사정 연합봉사활동은 노동조합, 정부기관, 기업체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으로 나눔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합봉사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CS는 2013년부터 대전 지방공용노동청, KT CS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정 연합 봉사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이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나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통해 예결위에서 추가 확보됨으로써 군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설립될 해양수산캠퍼스는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현장중심의 해양재난 안전관리 등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학사과정 3개 학과 216명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7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5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시행사업은 서천~보령 국도 건설(1공구) 260억원,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건설 106억원, 구정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대책사업 196억원, 장항항 정비 85억원,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 93억원,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93억원 등이다.

지방시행사업은 장항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9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5억원, 장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1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7억원, 판교배수지체통지방상수도사업 15억원, 비인면 농촌중심지 확

성화사업 5억원 등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비록 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천=김태선기자

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클린하우스 설치



2016년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아산시는 지난 4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분주하다.

아산시는 2016 전국체전에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CCTV 기능을 갖춘 클린하우스 2대를 용화동 지역에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지권 자원순환과장은 "내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청결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2016년도에는 클린하우스 8대와 CCTV 25대를 집중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요원을 선발 지도·단속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아산을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클린하우스란 기존의 쓰레기통 앞 배출에서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곳으로 현재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산=리광주기자

공주시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일자리 창출 위해 12명 모집... 오는 14일까지 신청 받아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2016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운전관 6명, 강북관 5명, 작은도서관 1명으로 총 12명이며 지원자격은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고일 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공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만 19세 이상인 자이다.

모집분야는 총 3개 분야로 도서대출

및 도서관 야간연장개관 업무를 맡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분야와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독서문화에솔프로그램 교육 업무를 맡을 독서문화에솔프로그램 교육분야, 청사 환경정비 분야이다.

근무시간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분야와 청사환경 정비 분야는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당 5만 3,000원의 보수(4대 보험료 포함)가 지급되고 독서문화에솔프로그램 교육분야는 주 20시간(1일 4시간) 근무에

일당 3만 5,00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구직등록확인서, 자격증사본,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주시 시립도서관 응진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4일 접수가 완료되면 17일까지 서류심사, 18일 면접심사를 실시해 28일 최종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시립도서관 응진관(840-2236) 또는 강북관(840-8955)으로 문의 하고, 홈페이지(www.gongju.lib.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공주=정삼범기자

충청지역 2014년 건강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만1509원·급여비 16만7770원으로 1.8배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련)는 2014년 1년간 대전·세종·충남·북이하 '충청지역'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지역의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세대당 월평균 9만 150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 7770원을 급여비로 받아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세종이 1.87배로 가장 높은 급여혜택을 받았고, 대전이 1.75배로 가장 낮은 혜택을 받았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보험료는 세대당 4636원 적게 부담하는 반면, 급여혜택은 5977원 더 많이 받았다.

소득수준별(보험료 부담 수준)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보면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 322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2만 5378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5.40배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보험료 상위계층(5분위, 상위 20%)은 1.26배(36만 5450원/2만9011원)를 받아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31배(12만 3342원/9386원), 직장가입자는 3.92배(12만6344원/3만2248원) 혜택을 받았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09배(20만4831원/18만8583원), 직장가입자는 1.31배(26만9038원/20만5634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65만8000세대 중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6만3000세대로 52.1%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31만5000세대로 전체의 19.0%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이상인 세대는 18만5000세대로 나타났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만2000세대로 전체의 53.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세대는 4만7000세대 이었으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만1000세대로 전체의 51.2%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만4000세대로 확인됐다.

분식대상 393만2000명 중 2014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주민은 24만8000명으로서 전체의 6.3%를 나타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는 적용인구의 7.9%(4만4000명)가 의료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는 적용인구의 5.0%(5만1000명)가 의료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의료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9.1%, 직장가입자는 5.1%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관할 35개 시·군·구 지역 중 세대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금산군(2.99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1.47배)로 확인됐다.

대전은 동구(2.10배)가 가장 높고, 유성구(1.48배)가 가장 낮으며, 충북은 옥천군(2.85배)이 가장 높고, 청주시 흥덕구(1.56배)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보험급여혜택률은 전남이 2.56배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7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종과 충남은 6번째, 충북은 10번째, 대전은 12번째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배기자

내년부터 차량이전 시 자동차세 납부해야

청양군,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집중 홍보

청양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고 난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제128조 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 해당 기년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 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함은 물론,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부터 지방세 체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삼범기자

천안시 소통·친밀세정으로 지방세수 확충 기여

서북구, 다양한 징수대책 추진 목표 20% 초과 달성 4508억원 징수

'시민중심 행복천안' 기반 조성을 위해 천안시 서북구는 지방세입 목표액 3757억원 확보를 위해 '2015년 납세자 중심 및 신뢰받는 소통 친밀세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제고로 세수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목표액 20% 초과하는 4508억원을 달성했다.

서북구는 이런 성과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수확충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북구는 정가본 부과 전 과제자료 점검과 누수 없는 세원관리 및 환급발생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재산세 등 정가본 세목의 납기내 징수를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징수율 1%이상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관리비용을 최소화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숨은세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11억45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 기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진, 변호관 '365 체납기동반'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콜 센터에 세무 전담상담 직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화번호 수직방안을 마련, 소액지방세 징수에도 전력을 기울여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진 서북구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연말까지 지방세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과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 최고등급 획득

철도공단, 공공기관 최초 Level 8 품질수준 달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15.10.28~10.30)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운영수준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6점(96%)을 득점해 공공기관 최초로 최고등급인 Level 8 품질수준등급을 인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정부·후남고속철도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CEO의 현장중심 경영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확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불공정 관행 차단, 해외철도수주 확대, 공감과 소통의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업무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

선활동을 시행해 성과를 창출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 제도는 한국표준협회의 계량화된 국제 성과지침에 근거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경영책임,자원관리,제품실행,지속적 개선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단은 2010년 Level 5를 인증 받은 이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14년 Level 7을 인증 받았으며 이어, 2015년에 공공기관 최초로 최고등급인 Level 8 인증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송병배기자

세종시 출범 대전 주택시장 미치는 리플 효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는 8일 '세종시 출범이 대전 주택시장에 미치는 리플 효과'에 대해 외부전문가 박선영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전 및 세종시의 주택시장 계약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그 결과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상호 동조화·보완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모습(경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대

전지역의 주택가격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지역 주택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김한수 본부장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향후 세종시와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추진이 긴요하다는 점"이라며 "향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

송병배기자

철도현장 '설계변경백서' 발간

철도공단, 설계변경 최소화·사업비 절감효과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전 철도 현장에서 공유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설계변경 백서'를 발간했다.

작년에 이어 개정 발간하는 '현장설계변경 백서'는 전년도와 달리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구분해 그 대표적 사례들을 다수 수록했으며, 그간의 설계변경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내용을 일목요연하

게 정리, 포함시켰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사례에는 발생원인 고 애방대책을 기재해 설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실무부서에서 참고가 가능하며, 주요 원인을 충분히 검토·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해 철도 건설사업 효율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해 전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철도건설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제2회 차세대 몽골 한국학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몽골의 한국학 신진 학자 초청 연수



세계 각지에서 한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몽골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몽골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가 열렸다. 단국대(총장 장호성)가 몽골의 한국학 신진 학자를 초청해 '제2회 차세대 몽골 한국학 리더 양성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천안캠퍼스에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0개 교육기관

에서 파견한 10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한·몽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학자들 간의 학문적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이고자 기획됐다. 국내 저명한 한국학 교수들의 강연을 통해 몽골 내 한국학 연구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몽골 신진 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정환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수급권 보호 강화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바꾸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 또 동일 일하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 도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액 감소에 따른 사용자 의무도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성기자

성장시장 미얀마에 K-Food 진출 확대

aT, 미얀마 최대유통업체와 단감 등 한국 농식품 판촉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얀마 대형유통업체인 시티마트(City Mart Holding)와 이달 16일까지 한국 농식품 종합 판촉행사(Korea Food Fair)를 개최한다.

인구 5500만명의 큰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얀마는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 발전으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황금시장이다. 미얀마는 롯데리아, BBO 치킨, 유가네, 불고기브라더스 등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진출도 활발하고 한식과 식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어,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장이다.

미얀마의 대표 대형유통업체인 'City Mart 슈퍼마켓'은 미얀마 내 고급매장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를 비롯한 대형유

통매장, 편의점 등 미얀마 전역에 67개의 유통매장을 운영 중인 미얀마 제1의 유통업체로, 이번 Korea Food Fair는 양국 뿐만 아닌 만달레이에서도 개최, 미얀마 내 한국 식품 붐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음료류, 냉동 부침개, 라면류, 고추장 등 각종 한국 가공식품 외에도 단감,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등 신선농산물도 신규로 미얀마에 선을 보며, 더욱 다양한 품목으로 미얀마 소비자를 맞이했다.

aT는 이번 행사와 함께, 시티마트 바이어를 대상으로 "K-Food 워크숍"을 개최, 시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 간장 등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시연회와 함께 신규 농식품을 소개해 판매 중인 한국 농식품에 대해 현지 바이어가 좀 더 이해하고, 신규 품목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병배기자

고국 돌아갈 때 꼭 가져가고 싶은 음식 1위 '라면'

외국인 VIP 관광객 688명 대상... 한국 음식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광 자원이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 VIP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 고국에 돌아갈 때 어떤 걸 가장 가져가고 싶을까?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이 운영하는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는 지난 11월 한 달 간 자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VIP 관광객 688명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가져가고 싶은 음식'으로 응답자의 41%가 '라면'을 1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라면을 1위로 지목한 한 50대 중반의 외국인 여성 VIP는 "한류 드라마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와 맛이 궁금했다. 생각보다 맵지 않고, 맛도 있어 선물로도 많이 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녀는 출국 시 특정 브랜드 제품의 라면을 10박스 구입하고, 종류도 매운맛, 해물맛, 참깨맛 등 다양한 종류로 섞어 가는 등 한국 라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드러냈다.

고국에 돌아갈 때 싸가고 싶은

음식 2위는 '김'(20%, 138명), 3위는 '치맥'(17%, 117명), 4위는 '불고기'(14%, 96명)로 나타났으며, '김치'(8%, 55명)를 선택한 외국인 VIP 관광객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가장 선호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는 '삼겹살 등 한국식 바베큐'(31%, 213명)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광장시장 반대떡 등 전통시장 음식'(22%, 152명)을 선호하는 외국인 VIP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통 한정식'(21%, 144명), '한식 뷔페'(17%, 117명), '동대문야시장 등 길거리 음식'(9%, 62명)이 뒤를 이었다.

좋아하는 한국 디저트로선 '한

김정환기자

산림청 '2015년 산림 IT 콘퍼런스'

10~11일 무인항공기 활용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등 소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오리엔탈 호텔에서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과 무인항공기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탐지기술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산림 IT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용하 산림청 차장 축사와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IT 트렌드 및 미래사회의'를 주제로 한 김중태 IT문화원장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

또한, 위성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 방안,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산림병해충시스템 소개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산림현장에서 미래 창조과학부 비타민 프로젝트로 추

진되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탐지기술'을 선보이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창조경제를 대표할 만한 정보통신(IT)과 과학 분야 융합과제를 발굴해 정부가 시범사업·연구개발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사가간 행사장에는 모바일 산림업무 지원시스템 등 여러 정보시스템을 소개하는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산림청에서 준비한 홍보물등을 통해 참여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박봉민기자

대덕대학교, 2015 중기청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선정

사제동행·도제교육을 통해 창업한 배대성학생 최종 선정



대덕대학교는 사제동행·도제교육을 통해 창업한 배대성(해양기술부사관과 졸업생)학생이 "2015 중기청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에 창업한 ㈜큐브에너지 지립대표 배대성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에너지하베스팅 융합제품을 연구하고 제품화하는 기

업이다. ㈜큐브에너지랩에서 보유한 에너지-IoT융합기술 3건의 특허는 KT와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 계약서(RFP)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로 보유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를 인정받아 RFP에 선정되었다.

배대성 대표는 선정된 RFP를 제품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진행하기 위해 대덕대학교, ㈜원큐 2개 기관과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창업start-up과제를 제안하였다. 과제평가 결과 높은 점수로 최종과제에 선정되었으며 본 과제를 통해 1년간 1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로써 배대성 대표는 ㈜큐브에너지랩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로 start-up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IoT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유관기관 간 사업연계 강화 나서

다문화정책협의회 개최...올해 대표과제 우수사례도 공유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다문화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과 다문화정책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선출, 내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대표과제 우수사례 발표, 보완·발전 방안 토론 등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추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와 교육청, 경찰청,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농협,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별로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역특성과 수혜성, 파급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중 우수사례 3건을 천안과 당진·홍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비율은 4.1%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다문화 가족은 4만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는 유관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충남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표=이지용기자

아산시, 시정모니터단 위촉 및 간담회 가져

향후 모니터 활동 운영교육 및 지침 등 전달

아산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2017년도 아산시 시정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위촉장을 받은 시정모니터 30명은 향후 2년 동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역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

항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선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에게 향후 모니터 활동 운영교육 및 지침 등을 시달했다.

북극광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



배재대 광고시정영상학과 소모임

'ai: 눈으로 보다' 전시회 가져



소모임 활동을 함께 하며 매년 전시회를 갖고 있는 사진 전공 학생들이 올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모하는 특별전으로 꾸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배재대 광고시정영상학과 소모임인 'ai'(눈으로 보다)는 8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제1전시실에서 18회 정기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이 1년간 정기출사와 개인출사, 공모전 응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풍경사진과 일

상생활을 담은 작품은 물론 다양한 후속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작품 23점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품 중에는 특별한 사진 2점이 걸려 있다. 지난날 세상을 떠난 4학년 양윤정 양이 소모임 정기전을 위해 준비했던 작품이다. 고(故) 양윤정 양은 졸업 작품을 마무리한 후 전시를 1주일 앞둔 9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진 채 끝내 친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쾌활한 성격에 맞게 밝고 화려한 광고사진 작업을 좋아했으며, 소모임에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사랑을 받았던 윤정양의 갑작스런 소식은 동료와 선·후배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소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성은 학생(3년)은 "이번 정기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윤정 선배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생전에 작업했던 사진을 함께 전시했다"며 "사진에 대한 열정 넘치는 윤정 선배가 하늘나라에서도 마음껏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추모했다.

이정복기자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대전교육청, 전국 최초로 성년식 의무화 된다

대전평생학습관(관장 임 철)은 12월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성년식이 조례로 의무화되면서 추진되었으며, 성년자를 대표하여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학생 600명과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하여 성년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 주며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1부 전통성년의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성년식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긍심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대전시립연

극국악원 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갖고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관해 성년식을 축하해 줄 예정이다.

1부 전통성년의례는 우리의 전통예법인 관·훈·상·제의 첫 번째 관례에 해당하는 통교례로,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명가례, 성년선서, 성년선언, 수훈례, 예법선언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대전평생학습관 임 철 관장은 "성년에게 올바른 성년의식을 심어주고, 지역 시민들이 고유의 전통성년의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質) 특별점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18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質) 관리대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시설 총 89개소 가운데 대전북탑터미널, 대구모점포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관련사항은 추후 구 홈페이지 등에 오역도 검사결과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서산소방서, 소방안전 저해 5대악 집중 단속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 저해행위 5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위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 의용소방대는 7일 오후 2시 칠갑산 샬레호텔에서 청양소방서장, 각 대별 의용소방대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위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산학교,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다!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김현균)은 지난 8일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이영희소장을 초청하여 "인권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레일, UN지정 '세계반부패의 날' 청렴 캠페인 개최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2월 9일)을 맞아 8일 오전 대전역 맞이장에서 한국철도공사,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두 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 기관이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공주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 지난 8일 오전 출근시간대 신관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연수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40여명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세종소방본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재난발생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훈련 실시

세종특별자치 소방본부(본부장 권대운)가 8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재난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세종시청, KT, 세종경찰서, 세종부대, 적십자 등 13개 기관에서 17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세종시민체육관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유증기가 누출되고 폭발로 인한 화재와 건물 붕괴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설정해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능력 등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단계별 상황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 기능숙달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불시 재난발생 대비 신속한 통제단 출동체제 확립 ▲변화하는 재난현장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총장직선제 폐지... 교육부 독재적 권력 행사 우려”

공주대 교수회,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설명과 답변 요청하는 공문 발송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는 급조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사주하며 독재적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2월 7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하며 내세운 논리와 실제의 괴리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설명과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주대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고등교육 졸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립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고교 졸업자 감축을 훨씬 더 능가하는 수만 명을 강제로 감축하여 수만 명이 재수학원으로 가게 만들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며 재수학원 산업을 부흥하게 한 것, 부실

비리사학의 부실대학 정원 미달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부실비리사학의 부실대학을 연명하게 한 것, 이러한 이상한 행정으로 학원연합체와 일부 교육부 관료의 부적절한 관계나 부실비리사학과 관료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의혹을 교육부가 자청하고 있는 것, 많은 교육부 관료가 퇴직 후 사립대의 총장으로 임명된 “교과이” 의혹과 연결되는 것, 1980년대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자의 양심이 독재 정권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제도적 견제 장치인 총장직선제를 폐기함으로써 교육부가 독재적 권위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등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은 또한 학칙(법령으로 규

정된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재만으로도 교육부가 말하는 폐해가 근절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직선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강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장기간의 총장 부재 행정 공백기 발생이 저해되고 재학생들과 예비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한국체육대, 공주대, 한국씨 학자의 양심이 독재 정권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제도적 견제 장치인 총장직선제를 폐기함으로써 교육부가 독재적 권위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등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은 또한 학칙(법령으로 규

지난 8월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가 의거로 총장직선제 강압 폐지라는 민주사회의 퇴행과 사회적 무감각에 대한 경고로까지 하였지만, 역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2순위 임용후보자가 순천대 총장으로 임명하여 국립대를 흔들고 있으며, 급기야 급조된 자문위를 동원해 교육부가 조종교육에 이어 고등교육을 망치기 위해 국립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려하며 공주대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규탄하고, 자문위 건의안과 교육부 보도자료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뚜렷하게 합리적이고 명백한 설명과 답변을 할 것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를 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특성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순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아산=리량주기자

“해상안전, 기술로 해결한다!”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듯 해상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해상안전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안전기술 출원건수는 총 16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127건에 비해 29.1%가 증가한 것이다. 해상안전기술은 해상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해상안전기술은 크게 선박시스

템 기술과 선박장치 기술로 나뉘어진다. 선박시스템 기술은 선박교통제어, 해상통신시스템, 선박경보시스템, 데이터처리 기술을 포함하고, 선박장치 기술은 선박환기, 선박견인, 선박화재예방 기술을 포함한다. 선박시스템 기술 중 대표적인 출원 기술로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비교하여 항로 이탈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선박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선박들의 항로별 해상 상황에 따라 경고범위와 위험 범위를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이탈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또한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 발

생 지점의 위치정보, 레이더 정보 및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전송해 주는 기술도 출원된 바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보고 전달되므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구조인력 요청 등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박에 설치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NFC)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비상대피 경로를 안내해 주는 등의 대피 관련 기술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이 기술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선박 내부 구조와 함께 최단거리 대피 경로를 안내 줌으로써 탑승객이 선박의 부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봉관기자



유구읍 의용소방대, 주민에 소화기 기증

소화기 기증 및 사용법 교육 ·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 유구읍 유구리 의용소방대는 지난 5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구읍 노동리 마을주민 43가구에 소화기 각 1개씩 43개를 기증했다. 이번 소화기 전달은 1가정 1소화기 보급운동을 통해 전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기증 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이어졌다. 소화기 전달식 후 의용소방대 공주=정성범기자

는 유구시장 등 읍내 일원에서 화재예방 가두 캠페인을 벌여 겨울철 주민들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의용소방대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개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사랑의 소화기 기증활동을 추진해 지역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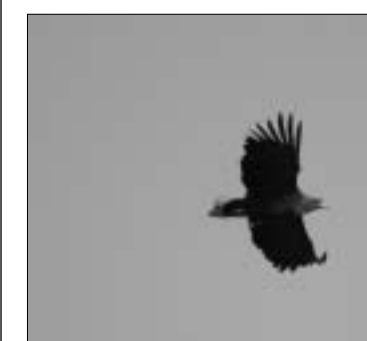
일부 수입과자, 포화·트랜스지방 표시된 함량 초과

최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운 수입과자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지원원(원장 한경표)이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중 8개 제품(13.3%)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하였고,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이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0g'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0.92g'이었다.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 제품(23.5%),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 제품(3.8%)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산가·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 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하여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대전 감천 월동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탐립물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탐립물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탐립물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최부영이 월동을 확인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감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감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감천 등지의 자연환경 하천으로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과 관심을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경위 신태상-순경 김영만

약물 자살기도자 SNS 활용 신속 구조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 온양지구대 직원들이 SNS를 이용한 기지를 발휘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여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3시 30여분 경 온양지구대 경위 신태상과 순경 김영만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신고를 받고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 대하여 119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응

화동 부근 현장에서 출동하여 근처를 수색했으나 수색 범위 내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지역이라 자살기도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김영만 순경이 요구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카톡, 카카오톡 등 SNS를 검색 요구자의 영문 이름을 근거로 전산조회를 실시해 대상자를 압착하고 주거지별로 신속한 수색을 실시하며 요구조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아산시 〇〇동 원룸형 주택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119구조대 장비를 이용해 출동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요구조자 A씨(25세)를 업고 내려와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기업 63%, 구직자 쓸데없는 잉여스펙 있다!”

충남교육청, 여성 리더십 향상 워크숍

본청 여성 지방공무원 59명 참가... 자기개발 및 소통 위해 마련

<사람인 조사 결과> 인사담당자 꼽은 지원자의 잉여스펙 1위 ‘석·박사 학위’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신입 지원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스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211명을 대상으로 ‘신입 지원자의 잉여스펙’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63%가 ‘있다’라고 답했다.

잉여스펙을 보유한 지원자 비율은 평균 30%(올해 기준)로 집계되었다. 지원자 3명 중 1명은 불필요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인사담당자가 꼽은 지원자의 잉여스펙 1위는 ‘석·박사 학위’(53.4%, 복수응답)였다. 뒤이어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48.9%), ‘특기 경험’(39.8%), ‘한자, 한국사 자격증’(38.3%), ‘창업 등 사업활동’(36.1%), ‘해외 경험’(33.1%), ‘공인어학 성적’(30.8%), ‘학벌’(27.8%), ‘수상경력’(24.8%), ‘제2외국어 능력’(23.3%), ‘학점’(22.6%) 등의 순이었다.

필요 없는 스펙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직무와의 연관성’(74.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무에 도움되는지 여부’(72.2%), ‘요구조건을 과도하게 넘었는지 여부’(15%), ‘차별화된 스펙인지 여부’(12%), ‘자격조건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12%) 등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

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0명 중 3명(25.6%)은 감점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실제 탈락한 지원자가 있다는 답변이 91.2%였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서’(70.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서’(55.9%), ‘실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32.4%), ‘이력서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32.4%),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29.4%), ‘채용해 본 결과 만족도가 떨어져서’(26.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잉여스펙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구직자들의 무분별한 스펙 집착’(47.9%,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 ‘구직자들의 명확한 목표 부재’(46.9%), ‘스펙으로만 인정받는 사회 풍토’(44.5%),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결핍’(39.8%) 등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조사결과에서 언급된 스펙이 무조건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인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해야 취업은 물론인사 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 본청 제1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여성 지방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충남 교육행정 업무에 한층 더 많은 여성 지방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여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아산시보건소 남동현 의사의 특강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김지철 교육감은 여성공무원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직원들과의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여성 지방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성이 평등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가 충남교육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부여중·고등학교 동창회 장학금 수여 지난 7일 교실에서 부여중·고등학교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장학금은 동창회 서술지부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우수한 인재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부여중과 부여고에서 선발된 장학생 각각 12명에게 총 1,3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진 송산중,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

2015년도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공모전

당진 송산중학교(교장 서형근)는 지난 주 금요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시상식에서 2015년도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공모전 교육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교육부가 “꿈과 끼가 가득한 즐거운 수업 만들기, Dream Class Festival”이란 주제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한 교사의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해 개최되었다.

한동규(과학교사)와 1학년학생 21명이 함께 팀을 이뤄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작성한 온라인 기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지도활동을 작성한 팀 단위 협력활동을 바탕으로 공모전이 이뤄졌다.

‘스마트하게 공부해서 남주기 프로젝트’란 작품명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수업에 참여하고 상호간의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3차 관내 초등학교(146교) 무상급식 및 중학교(82교) 저소득층자녀 9만 7874명에게 학생급식비 32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20%), 대전시(60%), 자치구(20%)로 각각 예산을 분담하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원한다.

이번 3차분(2015.11~2016.2월)에는 ▲초등학교 전체 88896명에게 무상급식비 19억8천만원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8,421명에게 11억7천만원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490명에게 7천만원 ▲소규모 농촌중학교 학생 67명에게 9백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2차분에서도 관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9만 8033명에게 학교급식비 40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공주 학봉초, 1교1사 협약식 체결

상호 신뢰와 협력 바탕... 지역발전 및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위해



학봉초등학교(교장 류순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및 농촌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농협회사법인 백련성대표 박수현과 1교1사 협약

식을 가졌다.

12월 7일 학봉초 교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농협회사법인 백련성 대표 박수현은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농촌 체험학습 활성화를 통해 계룡산 지역 발전 및 진로탐색 설정의 계기를 제공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학봉초등학교와 농협회사법인 백련성 대표 박수현은 앞으로 농촌체험학습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와 직업탐색 교육 인프라 교류 및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텃밭 조성 및 가꾸기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대비 교원 역량 강화

세종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전체 교원 500여명 대상... 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교원들의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중학교 전체 교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유학기 활동, 진로체험, 수업·평가 방식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연수는 3개 내지 4개 학교를 한 권역으로 모두 4개 권역 나누어 세종교육연구원,

새롬·아름·종촌중 등지에서 진행된다.

현장 눈높이에 맞춘 자유학기제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안내된다. 조직원들이 협력기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추진한 활동 등 2주간 앞서 시범 운영한 학교들의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세종시의 중학교들은 개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내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모두 3개 학기 기간 중 한 학기를 선택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된다”며, “자유학기제가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체험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폭넓은 체험처 확보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급식비 32억원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9만 7874명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3차 관내 초등학교(146교) 무상급식 및 중학교(82교) 저소득층자녀 9만 7874명에게 학생급식비 32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20%), 대전시(60%), 자치구(20%)로 각각 예산을 분담하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원한다.

이번 3차분(2015.11~2016.2월)에는 ▲초등학교 전체 88896명에게 무상급식비 19억8천만원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8,421명에게 11억7천만원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490명에게 7천만원 ▲소규모 농촌중학교 학생 67명에게 9백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2차분에서도 관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9만 8033명에게 학교급식비 40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이런 3차분(2015.11~2016.2월)에는 ▲초등학교 전체 88896명에게 무상급식비 19억8천만원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8,421명에게 11억7천만원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490명에게 7천만원 ▲소규모 농촌중학교 학생 67명에게 9백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2차분에서도 관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9만 8033명에게 학교급식비 40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요리로 삶과 인성을 이야기하다”

청양교육지원청, 청양 인재들 빛나는 눈동자로 꿈에 임하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지난 12월 7일, 청양고등학교 다목적실에서 고메트리 셰프 요리교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프렌치 레스토랑 고메트리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MOU를 맺고, 요리사의 꿈을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청양관내 중·고 희망 학생 중 20명으로 시작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큰 꿈만큼 빛나는 눈동자로 오리엔테이션에 임하였다.

약 두시간 동안 계속된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메트리 김성모 셰프는 요리사의 자질로써 성실함과 진실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으면서 큰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주방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들려주었으며, 고메트리 연구원 시장과 소믈리에 이시라씨도 참석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특히 소믈리에라는 특별한 직업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임하였다.

청양=정성범기자

서산교육지원청,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참여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 학습체험 실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석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 담당교사를 포함해 20명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교(원)장 연수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준대)은 지난 7일 금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5 유·초·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다양화 내실화를 위한 교(원)장 연수를 실시했다.

유미선 교육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체험 기회 확대 등 단위학교별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생동감 있고 행복한 학

교운영의 확산되는 금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다양화 내실화 방안 및 취사시기 꿈·끼 탐색주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천안동성중학교 교장 유재흥 강사님을 모시고 실시되었다.

금산=김남규기자



코레일 대전건축사업소 창조적 기술혁신팀은 지난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5 국민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 에서 UCC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동 정 ●

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정기총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 9일 오전 11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오후 2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 제4차 충남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참석, 오후 5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충남 도량꾸기 사업 공동참여 협약체결식 참석.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제



이춘희 세종시장 = 9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집현실에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제.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9일 오후 1시 30분 천안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2016학년도 대학별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참석.

홍성현우 고교육 품평회



김석환 홍성군수 = 9일 오전 11시 광천삼정웨딩홀에서 홍성현우 고교육 품평회 참석.

이웃돕기 순회 모금행사



황선봉 세종군수 = 9일 오전 10시 예산능금농협에서 열리는 사과, 배, 고품질 생산 영농기술교육 참석, 오전 10시 30분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순회 모금행사 참석.

순직 동료 유족 돕기 세종시 모금활동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근무 중 쓰러져 안타깝게 순직한 김길준 소방위의 유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 세종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의회인 시정실무협의회는 지난 4일 사망한 김 소방위가 5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온 사실을 알고 이번 모금활동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부서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해 고인의 자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길준 소방위는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년 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지난 3월 아픔119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4일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둘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이 있다. 세종=김정환기자

대형차 주택가 밤샘주차 등 합동 단속

충남도, 오는 16~18일까지 4개 반 21명 단속반 편성 실시

충남도는 오는 16~18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자동차·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 안전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운송질서 확립 합동 지도·단속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4개 반 2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과 터미널, 교통혼잡 구간,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점검 내용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택시 불법 영업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안전

벨트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특히 자동차·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정비 ▲불법 전조등 장착, 변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포=이지용기자

도 관계자는 "합동단속에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정착을 위해 업체와 운전자가 함께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팔레놉시스 자급 기반 다진다

도 농기원, 국내 육성 품종 평가회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8일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재배 현장에서 농가와 화훼 관련 사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놉시스 육성 품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팔레놉시스 신품종은 지난 2008년부터 인공 교배를 시작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11년에 선발된 것으로, 기내 증식 등 배양 과정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돼 재배에 성공하며 품종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 품종은 크림색 바탕의 분홍색으로, 초기 생육이 빠르고 분지성이 뛰어나 볼륨감이 우수한 중형종이다. 또 생육이 강건해 재배기간이 짧고, 병해충에 강하며, 재배 중 고사율이 낮아 재배하기도 쉽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최원준 박사는 "대부분의 품종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팔레놉시스의 국산 품종이 개발돼 농가의 품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산 품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팔레놉시스와 심비디움 등 양난 재배 면적은 총 27.7ha로 전국 108ha의 22.9%를 점유하고 있으나, 품종 대부분을 대만과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이 시급한 형편이다. 세종=김정환기자

노인종합복지관 민권위탁 오는 14일부터 공개모집

홍성군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위탁 운영할 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외에 법인이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다. 군은 위탁기관 선정에 앞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2015. 12. 4일부터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12. 21일까지이며, 접수는 2015. 12. 14일부터 12. 21일까지이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 내용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사랑의 동전 모이기' 3천여만 원 전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7일 시교육청에서 '2015 사랑의 동전 모이기(이하 동전 모이기)' 사업으로 모인 3260여만 원의 성금을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성구)에 전달했다. 이번 동전 모이기 사업은 세종시의 유·초·중·고 모두 52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 장롱, 자기 치량 등 집안과 주변 곳곳에 숨겨진 동전을 모은 것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모금된 성금은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진다.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예산군 보건소 관내 90여개 경로당 방문 각종 검사·교육

예산군 보건소가 지난 7일부터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이상 예방을 위해 한파대비 경로당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통합보건담당자, 보건진료원 40여명이 관내 90여개 경로당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는 낮은 신체대사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선생 병행 건강이상상을 수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을 독려하고 치매선별

검사와 노인우울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소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해 환자현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심혈관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갑작스런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공동브랜드 '에가정성' 홍보

예산군이 '2015년도 농산물 브랜드대전'에 참가 예산의 공동브랜드 '에가정성'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업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산지유통 관련 공무원과 연합 마케팅사업 참여 조합장, 농가 등이 참석해 '산지유통 1520프로젝트' 종합평가 및 시상, 지자체 협력과 브랜드마케팅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날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 '에가정성' 브랜드를 활용한 농·특산물 포장박스를 진열하고 리플렛을 준비해 전국의 참가자에게 군의 새로운 공동 브랜드인 '에가정성'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은 공동 브랜드인 '에가정성'에 대한 특화출원을 완료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 '에가정성'을 행정 분야와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소비자 인지도 획득 후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새로운 공동 브랜드인 '에가정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브랜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속적인 활용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전국 미술대전 전시회 열려

세종시, 최종 28점 선정... 오는 15일 시상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세종시 전국 미술대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한 입상작들이 전시된다. 종합대상을 받은 백혜옥씨의 '꿈꾸는 세종'을 비롯해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10편 등 총 2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종시는 90여점의 공모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28점을 선정했으며, 오는 15일 시상식을 갖는다. 또한 입선작을 대상으로 관람객이 뽑은 시민상(인기상)을 선정,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세종시 겨울철 재난대책 보고회

7개 재난분야 안전대책·선제적 대응체계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경호 행정부시장과 치수방재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올 겨울 기상 이변에 따른 폭설, 혹한 등 극한 기상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 폭설, 시, 구제역 등 7개 재난분야에 대한 안전대책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는 유사시 재난대응 중점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정환기자

먹는 샘물·약수 '우라늄 검사' 실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기준' 개정 따라 시행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이달부터 도내 유동 중인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등을 대상으로 우라늄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3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성분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우라늄 성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화강암 지질층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을 장기 음용할 경우 신장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이 기준치(30µg/L)를 초과할 경우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취수정이나 먹는 샘물은 개발 및 사용이 제한·금지된다. 또 기준치 초과 제품은 위생상 품판매단시스템을 통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우 호텔 등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정보를 인식할 때 수질 기준 초과 먹는 샘물이 발견될 경우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우라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 법령 개정에 따른 우라늄 검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우라늄 수질 기준 추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으로 먹는 샘물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이지용기자



정

아산시유림기로연



복기왕 아산시장= 9일 오전 9시 30분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산시유림기로연에 참석.

3농혁신 농업 대 토론회



김홍장 당진시장= 9일 오전 11시 시청대강당에서 열리는 기지시출 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기념 보고회에 참석, 오후 1시 20분 송악농협에서 열리는 3농혁신 농업 대 토론회에 참석.

탕정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아산시 합동기로연에 참석, 오전 11시 탕정농협에서 열리는 탕정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에 참석.

성과보고대회



한상기 태안군수= 9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성과보고회에 참석.

관광시설물 현지답사



이석화 청양군수=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북 진안군 구룡산에서 특색 있는 관광시설물 현지답사를 실시.

법사랑 연구회



현재규 아산교육장= 9일 오전 10시 천안박물관에서 열리는 법사랑 연구회 참석.

유아교육연수



심재진 당진교육장= 9일 오후 1시 50분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5~2016년 거두고 시작하는 유아교육연수에 참석.

아산시 풍기3동 경로당 준공식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아산시 풍기3동 경로당이 지난 7일 복기왕 아산시장 등 지역 인사와 노인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풍기3동 경로당은 지난 5월 말 착공해 2층 건물대지 198㎡, 건평 9887㎡로 준공됐으며 향유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의 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창영 풍기3동 노인회장은 "낡고 빈약한 마을회관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했으나,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젊은 세대에게 경문과 지식을 물려주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앞으로 경로당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2016년도 6대 역점과제 발표

한상기 군수, 소통과 신뢰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초점



"태안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모든 군정에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태안을 만들어가겠다"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8일 태안군의회 분회회의실에서 열린 '제237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장연설을 통해 '2016 군정 6대 역점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지치 군정 구현 등 내년도 청사진을 밝혔다.

한 군수가 밝힌 6대 역점과제는 △소통과 신뢰를 통한 선진 지치 군정 구현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통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균형과 내실을 갖춘 지역경제 육성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안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조경제형 농어촌 조성 ▲폭넓고 있고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 육성 등이다.

한 군수는 "내년은 제20대 총선 등 지방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태안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적 자세로 6대 역점분야 시책 추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선6기 '화합

과 변화'의 군정운영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원칙 존중', '군민 위주', '현장 우선'의 업무수행 패러다임을 군정 전반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민·관·연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선제 대응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참신하고 진취적인 군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만리포 거점사업 ▲관광 문 거꾸기 ▲백화산 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면 지역 119센터 지체로 6대 역점분야 시책 추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활력과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한 군수는 골프마너저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다문화거리 조성 등 특색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유류피해사고와 관련, 96% 가량 완료된 유류피해 배·보상 민사소송 1심을 조속히 매듭짓는 등 유류피해민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당시 태안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이밖에도 시니어클럽

"청양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이석화 청양군수가 민선 6기에 내건 공약사항 이행 로드맵을 차근 차근 밝아가고 있다.

군은 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모두 48건의 공약 중 시기 미도래 2건을 제외하고 46건이 완료됐으며, 26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읍·면장, 주무담당 등 70여명과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18개 사업(6734억 9500만원) ▲교육명품도시 청양 5개 사업(379억 3600만원) ▲맞춤형 복지 실현 15개 사업(302억 6700만원) ▲관광문화생태도시 조성 7개 사업(445억 6800만원) ▲맞춤형 지방자치 실현 4개 사업(104억 7600만원) 등 총 48개 세부사업(7967억여원)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기관 및 공약시설 유치에 힘쓴 결과 내년 1월 1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출장소 유치를 확정지키고 고령화hind 농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게 됐다.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함으로써 제12차 수립계획에 반영돼 내년부터 주공급배관이 매설되고 오는 2018년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명품 도시 청양을 건설하기 위한 200억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조성 사업은 현재 197억여원이 조성돼 당초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무료환승 시스템 구축과 행복택시 운영을 지난 10월 완료했다.

이석화 군수는 "공약사항 추진은 물론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군민들의 냉정한 평가로 잡힌 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보완·수정해 100%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약행사를 실시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정부3.0무형한 정부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 기프트카 1호 탄생, 저소득층 창업용 차량 지원 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 본부는 8일 당진시를 방문해 현대

기프트카 차량을 전달했다.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6 사업은 현대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립의 꿈을 키워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창업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대상자에게 차량에 필요한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창업자금 및 마케팅 지원과 함께 창업교육, 맞춤형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소득 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청양군 제23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청양군은 제23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청양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안전 연말연시 보내기를 위해 청양군 자율방재단 전만성 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단원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과속 등에 대한 홍보 및 안전 홍보물

을 배부했다.

또한 군은 겨울한파에 대비해 전기, 가스,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집회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에 대한 취약지역관리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아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열려
아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노선웅)는 지난 7일 온양신광교회에서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기부 중·고등학생 6명에게 150여만 원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창립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여명의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나눔과기쁨(회장 김종기), ㈜가람(대표 김도현), 아이본소아과의원(원장 김동운) 등의 후원기업 및 단체가 동참해 중증장애인 가정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를 가졌다.

장경동 목사 초청 여성도의교실 열려



바르게살기운동당진시협의회(회장 강우영)는 8일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도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여성도의교실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리더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성도의교실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 회원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특별한 행복"을 주제로 한 장경동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장경동 목사는 일상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자신의 인생과 살아온 일상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전달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재미있고 실감나는 강연을 실시하는가 하면 노래도 불러 주면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에서는 매년 여성도의교실을 통해 읍·면·동 및 이에서 특강을 개최해 사회 윤리, 도덕성 회복 및 가정 복원을 위한 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홍보 활동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연식)은 지난 7일,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과 함께하는 나눔캠페인 후원동행(同行)'이라는 기치 아래 행복키움추진단 단원을 모집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물품) 및 재능 기부 등 후원자 및 자원 발굴을 위하여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단원을 모집하여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아름다운 선행을 독려해 행복키움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자원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한편 온양5동은 이날 '희망2016나눔캠페인 이웃사랑성금 집중모금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기관·단체를 비롯해 기업, 주민 등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의 후원 및 봉사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식 단장은 "지금까지 남모르게 선정을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은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행복키움기금으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할 예정이며, 봉사계획을 세우고 후원자들의 뜻에 걸맞은 지속적인 봉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과 함께하는 나눔캠페인 후원동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 기업체, 재능기부자는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041-537-3286)을 통해 누구나 따뜻한 선정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금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며, 성금모금 관련 문의는 '온양5동사무소 복지팀(041-537-3754)'으로 연락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천안시, 국제농기계재박람회 개최 등 50개 사업 추진

천안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농업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주요 농정분야 업무추진현황 설명, 2016년 주요농정시책 구성,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5년 농정분야 성과로 419억 37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70개 사업을 추진해 과수APC 최우수, 대한민국과워브랜드대전에서 '하늘그린' 브랜드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천안형타령쌀 최우수품질로 국무총리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회의에서는 또 2016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등 5개 부서에서 2016국제농기계재박람회, 우리밀저장시설 현대화사업,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50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와 함께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처하고 21C 농정혁신을 이끌어갈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등 29명으로 구성된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영 시장은 "2015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에 거봉포도를 수출하고 미국에 무를 수출하는 등 우리도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2016년에도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더욱 노력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부여군 노인대학 수료식 열려

총 449명 행복한 100세 시대 가꾸며 사회발전 기여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노인대학 수료식이 지난 8일 홍산노인대학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며 열렸다.

제11기 홍산노인대학 수료식은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회장 민병시) 부설 홍산노인대학(학장 백복현) 주관으로 노인회·노인대학 임원, 수료생 및 단체장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3월 입학 이후 9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119명(남15명, 여104명)의 어르신들이 학사모의 주인공이 됐으며, 배움의 장에서 화합과 자긍심, 봉사정신을 보여주며 모범적인 자세로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지난 7월 제35회 부여노인대학 수료식에서는 233명(남28명, 여205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4월 임천노인대학 수료식에서는 97명(남16명, 여81명)의 어르신들이 수료해 총 449명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배출했다.

노인대학은 매년 3월~11월까지 노래교실, 국내외정세, 일 반상식, 건강체조 및 지도, 예절지도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교육,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군은 연간 510여억원을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초연금과 장수노인수당,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부여=한대수기자



두계 장옥미술관 지역명소로 인기

계룡시, 개관 1개월 ·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자리매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달 6일 충남문화재단 주관으로 문을 연 두계 장옥미술관이 개관 1개월을 맞아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계 장옥미술관에서는 그동안 두마면 지역 먹거리의 역사적 스토리가 담겨 있는 콩 등을 재료로 활용한 '완두콩 이야기' 전시와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구상작품 등을 전시했다.

또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좋은 인형 음악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관람객의 꾸준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논산=주선웅기자

'최고의 희망도시 논산건설' 청사진 제시

황명선 시장, 17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 밝혀

황명선 논산시장은 7일 본회의장에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기초를 튼튼히 다져 13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논산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의회와 동행하며 최고의 희망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그동안 세일즈 행정에 주력한 결과 2016년도 총 4,346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13시민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은 한해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 참여와 소통 행정,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지원, 융·복합형 농업 육성 및 공공 행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구축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은 논산의 미래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의 삶과 밀착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성장동력 지속적인 발굴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시정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어, 올한해 메르스 발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13만 논산시민과 시의회 의원,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유

망기업 유치,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조성, 국방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KTX후련소역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힘써나갈 것이다.

▲ 전통과 어울러지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사 문화도시 기반구축 및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정부의 인문학, 전통문화 진흥 및 육성 기조에 부응하는 한편, 돈암서원 등 문화자원 보존, 문화와 레저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 최고 효과 공경의 도시, 여성친화도시, 인간 존중과 배려문화가 정착되는 각종 복지행정을 펼치는 한편, 명품교육 도시건설을 위한 글로벌인재프로 그램 운영,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 학습도시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13만 시민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민안전망 및 논산시 CCTV관제센터 구축, 농촌환경평가제 정착,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 및 탐정호 트레킹길 조성 등 쾌적하고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능동적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역량 강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시민감사관제도 내실 운영, 여성자치대학, 시민을 위한 법률 상담터 운영, 시민참여학교 등 시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 추진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논산시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91% 늘어난 총 6,13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202억 원, 특별회계 935억원이다.

논산=한대수기자

동정

간담회



간담회에 참석.

충남테크노파크이사회



황명선 논산시장=9일 오후 2시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2층에서 개최되는 충남테크노파크이사회에 참석.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노박래 서천군수=9일, 오전 10시 30분 한산향교 기로연에 참석하고 오후 5시 서천군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이용우 부여군수=9일 오후 4시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 참석.



제23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가자

서천군, 겨울 추위 시작하자 · 한파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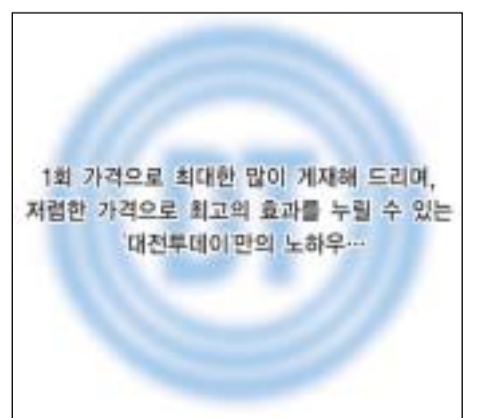
서천군은 8일 '제23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장항전통시장에서 화재 및 대설 등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장항읍 남·녀 의용소방대, 금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열기구 및 전차단기 점검, 시장화재 예방요령, 내 집 앞은 치우기, 대설대비 행동요령 등 겨울철 안전을 위한 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생활 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홍보용 물티슈와 치약칫솔세트, 전단을 배포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노박래 군수는 이날 캠페인에서 "이번 겨울에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설·한파 등의 겨울철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군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및 대설을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민호응 커

천안시 서북구, 1급 발암물질 지정 주민 건강증진 기여

천안시 서북구 도시건축과 과장 김승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에 대하여 국비(50%)와 지방비(50%)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성분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사

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손수철거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받으신 성환 거주 장모씨(55세)는 "슬레이트 철거를 무상으로 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고, 주위환경이 깨끗해져 너무 좋았다"며 "내년에도는 올해 보다 동당 지원금액 늘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서북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3년도 33동, 2014년 80동,

올해 82동 등 매년 물량을 늘려 철거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계룡시 엄사4거리 구간 노상주차장 유료화

불법정주차 방지 및 교통소통 개선 기여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엄사4거리 구간의 노상주차장이 10일부터 유료화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엄사4거리 주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엄사4거리의 무분별한 불법정차를 방지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면서 최근 조성된 공영주차장(무료)사용을 활성화하여 엄사4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전에 적용되는 노상주차장은 총 70면으로 주차요금은 처음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이며, 2시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이다.

운영시간은 하절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엄사상점가 상가번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엄사4거리 구간의 유료화는 교통혼잡 개선과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엄사상점가 이용률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유료화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엄사리 88부동산~LG유플러스 구간 19면 ▲엄사면사무소~경남아파트 구간 13면 ▲계룡프라자~다빈치안정점 구간 26면 ▲홍플러스 익스프레스 ~ 1월동 구간 12면 등이다.

계룡=주선웅기자

청소년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과 '비만을 뚫↓'

논산시, 음악줄넘기, 아침밥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의 비만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논산시가 자

라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석한 결과, 체지방률 감소, 운동실천율 증가 등 비만을 감소전반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논산시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전국과 충남에 비해 각각 2.7%p, 1.5%p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경초등학교 외 5개교 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건강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행태 설문 ▲기초검사 8종(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c, HDL-c, 혈당, 복부둘레, 혈압, BMI) ▲체력 측정 ▲음악 줄넘기 ▲아침밥 만들기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체지방률 33.83%에서 32.26%로 1.57% 감소, 운동실천율 4.65%에서 8.49%로 3.84% 향상, 학생·학부모·교사의 건강인지도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논산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산=한대수기자

통정

나눔캠페인 성공모금행사



오시덕 공주시장은 9일 오후 2시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성공모금 행사에 참석, 오후 3시 공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5 주민주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 오후 5시 상왕실에서 수요 간담회 주재.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9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오후 4시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LED전광판 표창시연회 참석.

농산물공동센터 건립공사 착공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스포츠레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산물공동센터 건립공사 착공식 참석.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9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석.

2015보건업무담당교사 연수



박도순 보령교육장은 9일 오후 2시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는 201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오후 3시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15보건업무담당교사 연수 참석.

보령시 현장 근로자외의 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8일 보령시 명천동에 위치한 김 제조업체인 갯바위식품(주) 대표이계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외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조업 종사자들의 고충 청취로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장 시찰을 통해 제조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구내식당에서 근로자 2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갯바위식품(주)는 1996년 설립해 마른김, 조미김, 김자반 등을 생산하며, 지난 1999년에 우체국 소량업체로 지정되어 빠른 성장을 했으며 ISO 9002 품질인증, HACCP 인증 등을 획득하는 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칭에 걸맞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보령의 향토기업이다.

보령시는 올해 1월 보령장(주) 방문을 시작으로 갯바위식품(주)까지 모두 9곳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체 현장근로자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고충을 토로한 애로사항과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 등 건의사항 24건을 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행정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내수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고,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려면 지역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증대해야 한다"며,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의 물적, 양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보령신항 개발·해양발전 세미나 가져

지역산업 융·복합 활성화 기반 구축

보령신항 건설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두 손을 맞잡았다.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령시 해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발전협의회(회장 김익수)가 주최하고 보령시가 후원한 가운데 8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신항 개발 및 해양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보령신항 개발과 해양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으며,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김태홍·홍문표 국회의원과 류봉석 보령시의회의장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양석우 발전협의회 수석 부회장의 '보령신항 개발 및 해양발전을 위한 제안'과 김형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영실장의 '보령신항건설과 관광보령의 조건', 정영복 세일종합기술공사 부회장의 '보령신항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제안', 윤병환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의 '충청남도 항만여건과 발전방향'과 토론, 정리순으로 진행됐다.

양석우 보령시발전협의회 수석 부회장은 좌장 제언을 통해 "보령은 대천·무장포 해수욕장, 오천성, 성주사지 등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보령화력발전소, GS칼텍스 등의 산업시설로 다양한 발전을 이뤄 왔지만, 새로운 관광 상품의 부재와 천혜의 자연환경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 발전이 더뎠다"고 말하며, "▲다목적항 건설의 정당성과 신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충청관광의 시너지 극대화과 크루즈, 요트 등 해양스포츠 발전 여건 충족 ▲효자-고대-장고-삼시도 등 4개 도서 연륙 건설 산업을 통한 15개의 유인도와 75개의 무인도를 활용한 해양관광과 레저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형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실장은 "보령항 인근은 천수만의 활용성이 높고 잠온도가 양호해 거점항 마리아 적지로 평가된 곳이다"며, "중·장기적으로 충남도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의 관점으로 다기능 복합 보령항 개발을 위한 마리아 예정지역별 수요 조정안 검토가 필요하며, 양호한 입지여건을 확보한 보령지역에 거점항 마리아항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연안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관광, 아쿠아리움, 테라피 등 테마공간 조성으로 특색 있는 해양테마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영복 세일종합기술공사 부회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항만의 기능 등 정책 변화에 따라 항만의 기능이 단숨에 하역 보다는 창고, 복합물류기지, 소규모 비즈니스센터 등을 포괄하는 복합 물류의 공간으로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존의 발전소 전문부문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화물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배후지역에 산업단지, 물류기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해 관련시설 확충과 항만 서비스 보완 등으로 신항만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환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은 "보령항의 경우 1997년 신항만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항만개발이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건설 필요성이 급부상 하고 있다"며, "향후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항만물류량을 유지하고 항로개설을 다양화 하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선진항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여 항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길 주문했다.

한편, 보령신항은 1997년 7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항만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6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도출됨에 따라 결국 2011년 7월 제3차 한국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됐었다.

이후 관광산업단지 활성화, 영보 일반산업단지 개발, 보령-태안 연육교·해저터널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보령시의 신항개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됐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보령신항은 물류와 관광(레저, 마리아, 크루즈 등)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서해안의 부가가치를 높일 지속가능한 명품항만으로 조성되길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우리/동네

이완섭 서산시장, 주요사업 현장방문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이완섭 서산시장이 시화간접자본시설(SOC)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시장은 8일 관내 SOC사업장중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및 국지도70호선개설공사, 서산IC체화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척사항 정취와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공사는 충남도에서 지난 2010년에 착공해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서산시 예천동부터 북석면 천리까지 17.94km 구간을 2차선~4차선 확포장하며 국지도 70호선 개설공사는 지난 2011년에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서산시 읍면면 문암리부터 읍면면 탑곡리까지 4.30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

또 서산IC체화 도로개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1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 목표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부터 국도32호선 운산나들목까지 연결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SOC사업이 준공되면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촉진과 물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은 물론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정민기자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 시립도서관 내년 1월 4일부터 실시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겨울방학프로그램을 마련, 시민들을 맞이한다.

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각기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웅진관 5개, 강북관 4개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선 웅진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도울 ▲창의력 광장 보드게임 ▲호기심 대탐험, 과학이랑 놀자! ▲알록달록 그림교실(한지공예)에 배우세요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진로탐색을 도울 '꿈·블·꿈·블'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5개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이동독서교실'을 운영,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북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를 꿈꾸다 ▲요리책 세계여행 ▲타입머신 타고 떠나는 책놀이 ▲1일 독서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접수는 웅진관은 1일부터, 강북관은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ilibrary.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웅진관 840-2237 / 강북관 840-8957)로 문의하면 된다.

시립도서관 웅진관 이진주 담당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청소년에게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일깨워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2000만원 부과

금산군 매년 6·12월 고지

금산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총 19억2천만원 12,343건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1/2씩 두 차례 고지된다.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합산한 한 번에 고지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웹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읍·면 주민센터·군청 재무과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특목학생이 자녀면 재산인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영지 당ache 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는 10일 일제히 발송된다.

금산=김남규 기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중점관리

공주시 내년 2월말까지 추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겨울철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2월 말까지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과 특별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자격 중지가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비롯해 창고나 공원, 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져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와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 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및 빈곤·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도 중점 발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발굴된 복지 소

외계층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비롯한 기초생활제도, 에너지바우처 등을 공적자원 활용,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지속 관리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방문 상담 및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중수 사회과장은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 생활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주시 청 행복키움지원단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가금극복 대체용수 개발 온힘

서산시가 추진하는 가금극복 대체용수 개발사업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대체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를 광역상수도 대신배수지에 지난 5월부터 하루 1800톤씩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전환사업 6개소가 모두 완료돼 1월 15(토)의 광역상수도를 대체하게 됐다. 대신배수지 인근에 추가로 확보한 지하수에 대하여 송수관로 공사도 마쳐 이번 주 안 1350톤 이상의 대체용수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오는 10일에는 모두 3300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지하수로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연면 오사3리 마을상수도 여유물량 전환 △지곡 및 무장배수지 주변 지하수 개발 2개소 △지곡배수지 주변 유출수 활용 △차리 배수지 주변 농업용 지하수 2공 전환 사용 등의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5000톤 이상의 대체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해미 오하배수지, 부석 및 수석배수지 주변에 대체수원 개발을 추진해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근 잦은 눈비에도 보령댐 저수율은 23%대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지속적인 필수 운동이 필요함에 따라 서산시는 이달 중 절수기기 4천여 개를 보급하고, 특별교부세와 충청남도 및 시 재난관리기금 등 14억 원을 투입해 긴급 노후 불량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등 가금극복에 힘쓰고 있다.

서산=김정민기자



내년도 안전한국훈련 사전훈련 성격

보령시, 재난대비 민관협력 합동 현장훈련 가져

보령시는 재난현장의 초동대응과 수습복구 상황에서의 민관 협력역량강화를 위해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지난 7일 충청남도립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붕괴대비 민관협력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내년도 열린 안전한국훈련 사전훈련 성격을 갖고 민관협력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으며, 충청남도 사회재난과 및 6개 민간단체(충청남도립요양원, 대한적십자사보령지구, 보령시자원봉사센터, 보령의용소방대교구면대, 해병대전우회보령지회, 아마추어무선연맹보령지부)합동으로 1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원인미상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매뉴얼을 통한 사상자 구조와 타 시설로 대피하는 훈련으로 실제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현실감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회 기능형 훈련을 하지 않아 간소화 했으며, 기관중심 역할점점 훈련이 아닌 민간단체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참여대상을 간소화했다. 또 훈련 전·후의 행사와 성과우수 훈련을 지양하고 민간단체의 현장선연맹보령지부 합동으로 130여

남달랐다. 그동안 재난 훈련은 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의 참여 역할의 비중이 적었지만, 이번 훈련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재난현장에서 기관과 협업하며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민간단체 중심 훈련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관이 주도하는 재난대비 훈련은 수시로 시행하기에 초동대응이나 수습복구 부분에서 안정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 재난은 민간 분야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며, "앞으로도 대형재난 사고에 대비해 민간주도의 지속적 훈련과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보완으로 긴급구급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테드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도 승리 (MBC오전7시50분)



선우(췌필립)와의 결혼을 왜 승낙했는지 묻는 재경(유호린)에게 영선(이보희)은 환기에 치량사과만 아니어도 시키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한다. 한편, 선우는 승리를 찾아와 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하고 이철홍(주승원)가 보게 되는데...

▲어머님은 내 며느리 (SBS 오전8시30분)

수경은 현주와 경민이 함께 미국에 간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현주를 찾아간다. 현주는 앞에서 비아냥 거리는 수경에 오히려 경민과 잘해볼 거라며 도박을 하고, 수경은 분에 못 이겨 한다. 한편, 성태

는 경민과 현주의 미국행을 막기 위해 경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집 꿀단지 (KBS1 오후 8시25분)



오봄(송지은)은 아란(서이안)이 태오(김민수)를 위해 거짓말 한 사실을 알게 되고, 국회(최명길)는 아란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선영(최수린)은 무심한 김수(김유석)에게 침묵시위를 하는데 김수는 개의치 않는다. 배달(최대철)은 정미(안선영)에게 사랑의 이벤트를 펼치지만 물벼락만 맞는다. 아란은 국회 말에 따라 오봄에게 사과하려 간 주점에서 함께 웃고 있는 국회와 오봄을 보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우주전쟁 (OCN 오후 7시40분)

레이 페리어(톰 크루즈)는 이혼한 향만 근로자로 아무런 희망 없이 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의 전 부인(미란다)은 오트(벤)이라는 로비(저스틴 체트윈) 분과 어린 딸 레이첼(다코타 패닝) 분과 주말을 보내라고 레이에게 말한다. 그리곤 얼마 안 있어 강력한 번개가 내리친다. 잠시 후, 레이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버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커다랗고 다리가 셋 달린 정체 불명의 괴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나타나 사람들이 미쳐 반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다.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외부의 알 수 없는 침략자들의 첫 번째 지구 공격으로 그들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이와 그의 아이들이 무자비한 새로운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급히 피난을 떠나, 파괴되고 황폐해진 도시를 가로지르는 여정에 오른다. 거기서 그들은 침략자들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피난민들을 만나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안전한 곳은 없고, 피난처도 없다.

▲숨비꼭질 (채널CGV 오후 2시20분)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면...? 숨비꼭질 암호 □□□△2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공한 사업가 '성수'(손정주)는 하나 뿐인 형에 대한 비밀과 지독한 결박증을 갖고 있다. 어느 날 그는 형의 실종 소식을 듣고 수십 년 만에 찾아간 형의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새겨진 이상한 암호와 행을 알고 있는 '주희'(문정희) 가족을 만난다. "제발 그 사람한테 제 딸 좀 그만 훑쳐보라고 하세요" 어린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주희'는 자신의 집을 훑쳐보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낯은 아파트의 암호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수'는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별과 수를 뜻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형의 아파트를 뒤로한 채 자신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온 그 날, '성수'는 형의 아파트에서 봤던 암호가 자신의 집 초인종 옆에서 새겨진 것을 발견한다. 사라진 형, 숨비꼭질 암호, 서로 다른 두 가족에게 찾아온 충격적 진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두 가족의 숨바꼭질 사투가 시작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카카오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빈스오두막' 카페에서 가객 김광석 통해 나눔 실천

"김광석 그를 노래하다" 주제로 추모 콘서트 열려



지난 4일과 5일, 저녁 7시반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빈스 오두막'이라는 작은 카페에서 '김광석 그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가객 김광석'을 추모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이 콘서트의 추모가수로 출연한 이는 지난 십수년간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무국장직으로 임하게 되면서 사회운동가로 전환한 이원영씨로 매년 이맘때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이할 만큼 지역에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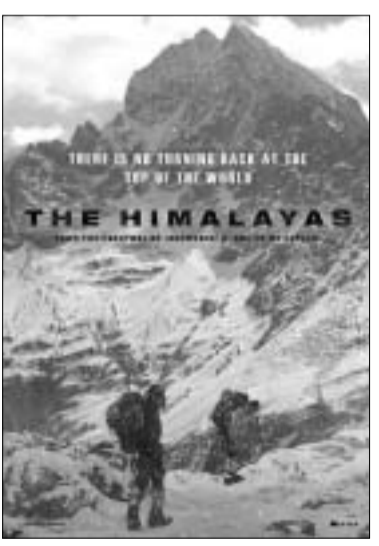
이름에 거쳐 열린 콘서트에는 약 140여명의 관객이 다녀갈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고 공연 중에는 김광석 라이브 앨범과 본인이 직접 제작한 '김광석 가사집'을 선물하기도 해 더욱 즐거움을 주었으며 공연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기로 해 그의 의미가 남다른 공연이 됐다. 고인이 된 김광석씨와 생전에 작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올해로 열세번째 추모공연에 하게 되었다는 그는 공연 중에 "이런 작은 공연문화가 우리 서민들의 삶에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

김범수, 일반인 여성과 비밀 결혼... 녹화 중 잠깐 고백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범수, 일반인 여성과 비밀 결혼... 녹화 중 잠깐 고백. 김범수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8일 한 매체는 방송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범수가 최근 일반인 여성과 비밀리에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범수의 비밀 결혼 소식이 최근 진행된 O tvN '비밀독서단' 녹화에서 결혼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했다고. 김범수의 비밀 결혼에 대한 잠깐 고백은 8일 낮 4시, 8시 방송되는 '비밀독서단' 13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황정민·정우 '히말라야' 63개국 선판매 기염 토해

2015년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휴먼 감동 실화... 개봉전부터 화제작 입증



2015년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휴먼 감동 실화 <히말라야>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필름 마켓인 '아메리칸 필름 마켓 (American Film Market 이하 AFM)'에서 63개국에 선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히말라야>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AFM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스크리닝 행사를 진행했

으며, 이후 프랑스, 호주, 인도, 터키, 태국 등 63개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해 선판매가 이뤄졌다.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만, 한국 개봉도 전에 수십 개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다. 영화를 관람한 바이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그리고 위대한 도전이 품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에서 극적 감동을 느꼈다", "실제 사건을 전혀 몰랐음에도 히말라야의 생생한 비주얼과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덕에 영화에 자연스레 몰입했다. 특히 황정민은 언어를 초월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배우"라며 <히말라야>에 호평을 보냈다는 후문. CJ E&M 영화사업부 김성은 해외영업팀장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따뜻한 소재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는 <국제시장>의 제작사 J&K 필름에 대한 신뢰, 황정민과 정우 등 배우들의 호연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이 같은 선판매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히말라야>는 오는 16일 국내 개봉 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에서 개봉 예정이다. 영화는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목숨 건 여정을 떠나는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의 기승 뜨거운 도전을 그린다.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과 정우가 주연을 맡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배우 황정민이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열애 중이다. 황정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황정민이 지인의 소개로 최근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정민 측은 "확실한 것은 아직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두 사람이 이제 막 좋은 만남을 시작한 만큼 예쁘게 휴먼원정대의 기승 뜨거운 도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정민 측은 "황정민이 올해 배우로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 입장 이외에 다른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이므로 더 밝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황정민과 이영돈의 데이트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건강대생, 치매정보 알리기 공모전 대상 건강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한 '2015 치매정보 알리기 공모전'에 UCC를 출품해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미식품 농산공장 준공 논산시가민선5기부터 유치한 기업들이 잇달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미식품 농산공장은 45,332㎡의 부지에 15,036㎡의 공장을 건축, 김포 공장 생산량의 2~3배 이르는 규모로 이번 농산공장 가동으로 논성농공단지에 입주할 고품질 농산물 5개사와 더불어 농산농업의 획기적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어린이 초대 영화시사회 지난 7일 오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영화관에서 대전지역 보육 시설과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150여명 초대해 '뽀로로' 극장판(컴퓨터 왕국대모험)영화를 보여 주는 '사랑 나눔 영화시사회'를 가졌다.



사신세우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실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서신상공회와 공동으로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주대, 2015년 장애학생 바리스타 성과 보고회 및 인턴 채용 성료 12월 7일 오후 4시 30분 국제회의실에서 김창호 총장직무대행, 충남교육청 백옥희 장학관, 학교기업장서청호 교수,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장애학생 직업교육전문기관 직무위탁교육 '바리스타 교육과정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비로세움병원의식산업협회대전세종충남지회와 지방병원 협약식 대전 비로세움병원(병원장 황인석)과 (사)한국외식산업협회대전·세종·충남광역지회(회장 김중원)는 8일 비로세움병원 9층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중 일부 기부

충남기계공고 이재범 교사, 장학금 기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박준태)는 '2015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인 이재범 교사가 지난 7일 모교이자 재직교 도움반(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상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신념과 후진 양성을 향한 열정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을 본인만의 공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어려운 제자들에게 돌려주어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내년이면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도, 동문



기업 및 동문회 등을 통해 매년 300~3000만원의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내년이면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도, 동문

한편, 이재범 교사는 지난 4월 교육부·조선일보사·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 제정·시상하는 제1회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

이재범 교사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도움반 학생들이 장애인 바리스타대회에 참가하는 등 자신의 특기와 진로를 위해 부단히 연습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교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격체로서 받았던 사랑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고 그동안 마음먹었던 것을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담담히 말했다. 이정복기자

불거리 풍성, 제10회 예지 페스티벌

민학도들의넘치는 끼와 재능 펼치는 한미당 개최



대전예지중고등학교교장 박규선은 8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민학도들의넘치는 끼와 재능을 펼치는 한미당, '예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합창반과 나라예술포럼단 단장 양용모(15회 졸업) 졸업생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1부 '숨겨졌던 보석들'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한 달 간 준비한 각색이 타령과 신나는 댄스 공연 '강남스타일'이 400여 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어 2부 "우리는 한기족 축제 마당"에서는 전통무용 '홍(紅) 삼풀이', '네 박자' 영어버전 등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예지 페스티벌은 민학도들의 지성과 상식을 겨루는 예지 골든벨을 시작으로 학

업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줬던 성인들만의 나이트 행사, 대전 시내 청소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했던 청소년 가요제에 이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제때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과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한 청소년 학생들이 2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검정고시 없이 학력 인정의 기회를 얻고 대학진학 및 취업을 통해 사회진출을 하게 하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이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소통, 배려, 나눔의 실천지로서 교육과 행복한 독서 문화를 만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독서인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동구, 자원봉사 화합과 우정의 장

8일 구청 공영장에서 '2015 동구 자원봉사자 한미음대회' 열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8일, 구청 공영장에서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 '2015 동구 자원봉사자 한미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헌신봉사로 구정을 빛낸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시상, 장학금 전달, 각종 축하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인 '뮤즈'의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를 감상하며 한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김태성기자



국민건강 대전본부, 대전자모원에서 실시

한부모가정 대상 육아강좌 및 물품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미혼모쉼터인 대전자모원에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육아강좌와 물품후원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본부는 참석한 한부모 가정 20여 명 및 자모원에 젓병소독기, 분유, 걸개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으며, '건강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영양관리'를 주제로 여인선 대전광역시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한 육아강좌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분부는 매년 다문화가정 및 미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육아강좌를 개최해 왔다.

강희권 본부장은 "우리 지역의 한부모가정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우당 이봉연, 논바닥에 서예를 심다

여름 내 땀 흘린 농부의 노고를 양분삼아 일차게 익어 간 곡식을 수확하고 난 후의 땅은 그 풍성한 결과물만큼이나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땅에서 살고 땅에서 서려가려는 농부의 쓸쓸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논바닥 서예전'이 청양에서 열려 눈길을 모은다.

지금 청양군 비봉면 불로리길 도로에 인접한 논 300m는 우당 이봉연 선생의 '논바닥에 서예를 심다'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로 변신했다.

한글을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글자꼴로 체계화한 '우당체'의 이봉연 선생은 가을 황금빛으로 즐뎠이

던 풍요로움이 사라진 후의 쓸쓸한 공간을 예술작품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당 선생은 도시의 전시장을 찾아야 볼 수 있는 예술작품을 농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해 자연스럽게 예술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세계를 음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비닐에 쌓여 논바닥에 방치돼 있던 짚단에 작품을 부착해 일으켜 세움으로써 관심 밖의 사물을 탈바꿈해 새로운 의미로 등장시킨 것이 눈에 띈다.

청양=정성범기자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 기부금 1천5백만원 전달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는 8일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동참하고자 당진시에서 주관하는 '희망 2016 나눔캠페인'에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당진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가족당진시 석문면 거주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4일에는 당진시 관내 차상위 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300만원)을 전달했다.

당진화력본부 직원들도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섰다. 연말을 맞아 총45개 봉사팀에서 각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소외이웃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배상규 당진화력본부장은 앞으로도 당진시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이산농협, '사랑의 쌀'로 지역주민과 온정 나눠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지부장 양태길)는 7일 연말을 맞아 환희에유원, 꿈꾸는나무, 온양장애인,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정애시니어빌, 아산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NH 행복채움운동,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의 공익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해 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사회공헌 활동인 'NH 행복채움운동'의 일환으로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사랑의 쌀 140포대(10kg 3500원) 상당을 전달했다.

양태길 지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NH행복채움 운동 행사는 우리사회에 나눔 실천 문화 확산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눔 문화확산과 행복한 아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논평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는 시민생존권 때문이다



김종식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북당진 변환소 건설에 대해 당진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진시가 새로 조성된 해상매립지가 평택으로 편입되지 않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은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왜 거부했는지에 대한 자치단체 관계자의 정확한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핵심적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일부 지역적 문제를 짐소봉대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는 이유를 해상매립지의 평택 편입으로 인한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땅 싸움'으로 편향했다.

북당진 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진화력에 이르는 33.2km의 거리에 80여개의 345kV 송전철탑이 건설된다는 데 있다. 반면 북당진변환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까지 34.2km의 구간에는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으로 송전하며 전면 이중화로 시공된다. 북당진변환소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설치되는 송전선로 중 중남 구간 33.2km에는 철탑으로 건설하고 경기도 평택 구간 34.2km에는 전면 이중화로 건설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백한 지역차별 정책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재벌공화국의 민낯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재벌 우선 정책으로 인해 지방과 주민들이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지방 자치 20년을 맞는 우리의 자치단체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반에 그친 무늬만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방 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제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어느 나라에서건 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온갖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소와 송전선 시설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법률로 인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저촉되는 40여개가 넘는 법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괄 의제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5조의 2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진지역에 각종 발전소와 송전선 시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2개의 초대형 석탄화력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15개 송전선로 노선에 526개, 189km의 철탑이 들어서 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당진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37자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첫째 변환소는 발전소가 아니라 주장할 철탑을 설치할 것, 둘째 산업부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득할 것, 셋째 건축허가 전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이다.

여기에서 한전이 변환소를 발전소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45kV 변전소의 경우 600m 이내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꾀수다. 둘째, 셋째의 전제조건도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내용이다.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송전철탑 80여개가 들어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주장에 다를 아니다. 자치단체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을 '몽니'나 '발목잡기'나 하는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치행정을 손 놓으라는 얘기 와 진배 없다.

한전은 건축허가 불허로 인한 피해로 발전계약 비용 300여억원을 비롯해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 손해액 연 124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선(先)투자비용 연 157억원 △감가상각 손실비용 629억원 등 총 1210여억원을 제시했다. 한전의 뺑뺑이 식 피해액 부풀리기도 기가 막

히지만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피해액 운운하는 것도 흑세무민에 다를 아니다. 그 동안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악법에 의해 온갖 특혜를 받으며 사실상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은 생각 않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또 한번의 특혜를 요구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동안 당진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마구잡이로 건설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송주법에서도 기존 선로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있는 한전이 피해액을 들먹이더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인 당진시가 아닌 김홍장 시장과 정병희 부시장 등 공무원 5명을 특정해서 소송을 낸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김 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들은 자택으로 배달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으로 인해 가족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례에 대해 '몽니'라고 비난한 일부 언론들에 대해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한 후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과 한전으로부터 막대한 광고비를 받는 이들 언론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광고주의 이익에 급급해 편향된 보도를 한다든 누가 주장하면 억울하듯이, 당진시도 평택과의 '땅 싸움' 때문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들으면 억울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할 일이다.

사설

뒷북치는 안전행정

케이블화재로 인해 서해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 혼잡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서해대교 이용이 불안하다는 여론과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질타와 언론의 지적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시공과 부실점검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부처들이 사고현장을 방문한 뒤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며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구태를 반복하는 뒷북행정을 지양하고 사전 점검과 부실시공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로 일부구간의 이용이 중단된 가운데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주요 대교에 대해 민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장관도 서해대교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 고(故)이병권(54, 지방소방령소방공무원 영결식장에 참석한 후 서해대교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조치 철저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하나같이 안전점검을 강조하며 국민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일 정표에 따라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은 7일 서해대교 사고현장을 방문, 도로공사 관계자의 사고현황과 수습복구상황을 보고 받은 후 안전 조치 철저와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인용 장관은 박근혜 도로공사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서해대교는 평소에도 각종 등으로 위험한 지역으로서 작업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수공사시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동일공법(사장교)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조치 후 통행을 재개하라고 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우회교통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시장교 현수교 등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14개소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안전점검

을 실시한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 도로공사, 도로교통법에서 관리 중인 사장교와 현수교 총 14개소에 대한 일제 긴급점검이다. 국토부의 이번 점검은 도로공사, 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합동 점검을 통해 특수교 주탑의 보강기거나 케이블 정착부 등을 면밀히 살펴 구조적 이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지관리 및 지진 계속시스템이나 화재대비 소방시설, 낙뢰대비 피뢰침 등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없이 주장해왔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요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와 종합점검 계획대로 전문가 등 민간인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 방지대책과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조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의 서해대교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특히 지난해 10월, 모든 국민을 불안케 한 고고서발견이 다시 언론에서 지적됐다. 한국도로공사가 2005년 작성한 서해대교 부식 실태에 대한 자료이다. 서해대교는 지난 2000년 완공됐다. 그러나 개통 5년 만에 나타난 교각의 부식 실태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서해대교 교각 105개 가운데 바닷물 위에 세워진 36개 모두의 철근이 부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각 대부분은 철근을 감싸고 있는 외부 콘크리트가 균열·직진 상태이며 이 중에 4개는 부식 속도가 빨라 녹물이 나오고 교각이 갈라지는 '가속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가속기'를 넘어 '한계기'로 접어들면 전면보수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기일보의 지적은 가히 충격적이다. 당시 부식의 원인이 부실시공이었고 시공사가 철근을 둘러싼 일부 콘크리트 두께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6.8cm로 시공했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4cm로 시공했다고 한다. 또 철근에 방염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고도 30여건만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감추고 있었다고 하니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다. 이번 케이블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총체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모조리 찾아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의 소사

2010년 > 롯데마트 정기직진(불금직진) 관련 논란	1992년 > 미군 재병대, 유엔원화중지건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첫 상륙
2010년 > '금을 외길' 3대째 대선유권 청원주변력	1991년 > 한국, 국제노동기구(ILO)에 1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008년 > 소설가 박연희 예술원 회원 당선	1991년 > 신용방송(SBS) TV 개국
2000년 >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 사면으로 풀려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	1990년 > 반원사, 올란드 대통령 당선
2000년 > 바라크 오바라 출생 50주년	1983년 > 버마, 두 아일산테러범에 사형 선고
1997년 > 4지회당 1차 본회의 열려버서 개최	1982년 > 소련 두 우주인, 211일간의 우주체공 기록을 세우고 귀환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편집인 : 박은성, 박은신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 3차 임시총회(제 2차 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문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여러분께 공고합니다.
 저희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 3차 임시총회(제 2차 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대의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상정 안건 의결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8시 30분
2. 장소 : 금강한정식 4F 대회의실 ☎ 042 - 226 - 8686
-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27 (대사동)
3. 상정 안건 :
- 제 1호 안건 : 제 2기 임원선임 관련 건.
- 기타 안건

* 출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09일

세무 문의 : 조합 사무실 ☎ 042 - 536 - 7575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6, 4층 (괴정동, 오렌지타운)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大田투데이

- 지사지국 안내 -

[서울] 02)6406-5921	[계룡] 042)841-0303	[서둔산] 042)321-2400	[동대전] 042)284-3382
[청주] 043)254-3681-2	[부여] 041)834-2123	[선화] 042)256-8757	[가양] 042)628-1527 [홍도] 042)626-8020
[아산] 041)545-8904	[보령] 041)831-8897	[유천] 042)585-0119	[중리] 042)631-2582
[공주] 041)858-1482	[서산] 041)664-8300	[대흥] 042)254-0788 [태평] 042)531-8279	[신탄전] 042)932-2568 [송강] 042)935-1921
[예산] 010-2049-4141	[당진] 041)358-7979	[둔산] 042)488-3894	[내덕] 042)633-9178 672-0016
[홍성] 010-2049-4141	[태안] 041)675-0735	[도마] 042)523-1189	[유성] 042)320-3460
[논산] 041)734-4567	[청양] 041)831-8897	[갈매] 042)527-0056	[관저] 042)541-7317
[천안] 041)572-2115	[금산] 041)753-8466	[괴정] 042)522-0044	[연구단지] 042)862-0078
[세종] 044)865-7758	[서천] 041)831-8897	[가오] 042)271-4122	[노은] 042)823-9840

충청권 서해지역 및 중부권지역의 '가뭄극복' 물 절약 캠페인

충청권 서해지역 및 중부권지역의 40년 만의 심각한 가뭄으로 단수 및 급수제한에 들어간 지역민을 위해 가뭄 극복에 500만 충청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속 물절약 방법

▲욕실에서의 절약방법

- 욕조 목욕 대신에 샤워를 간단히 하기.
- 양치질 할 때는 컵을 사용하기.
- 세수나 면도시에 물을 받아놓고 하기.
- 샴푸나 린스는 되도록 적게/쓰도록 노력하기.
- 절약형 샤워꼭지나 유량조절기를 부착하기.

▲부엌에서의 절약방법

- 음식물 찌꺼기나 국물 등을 버리지 않기.
-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식용유나 기름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기.
- 설거지, 야채, 과일 씻을 때는 물을 받아쓰기.
- 자동식기 세척기는 크릇을 모아서 한번에 쓰기.

▲세탁시의 절약방법

-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 세탁 후 물을 흘러 보내지 않고 재활용하기.

▲화장실에서의 절약방법

- 변기에 종이, 담배, 공초를 버리지 않기.
- 절약형 절수기기를 설치하기.

▲욕외에서의 절약방법

- 차를 닦을 때는 용기에 물을 받아서 하기.
- 보도 청소시에는 호스를 쓰지 말고 비로 쓰기.
- 잔디물주기는 재활용한 물을 주기.

▲기타 절약방법

- 중수도 설치 의무화 추진을 확대하도록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 물값 현실화로 물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수질오염 방지방법

-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하기.
- 수원지나크 상류지역에서 위락행위(낚시, 야영, 세차, 쓰레기 투기)등을 하지 않기.



보령댐



태안송현저수지

주 관 | 大田투데이 DTN

